

## 청년사업가를 위한 성장요인이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조리·외식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이인숙<sup>1</sup>·김외순<sup>2</sup>·나영아<sup>¶</sup>  
울지대학교 식품산업외식학과

### A Study on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Growth Factors 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nd Foodservice -

In-Suk Lee<sup>1</sup> · Oe-Sun Kim<sup>2</sup> · Young-Ah Rha<sup>¶</sup>  
Dept. of Food Technology and Services, Eulji University<sup>1,¶</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nterrelationships among young entrepreneurs' growth factors,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argeting the students who major in culinary and foodservice. Based on total 327 samples obtained from the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reliability and fitness of the research model and verified total 2 hypotheses with the Amos program. The proposed model provided an adequate fit for the data,  $\chi^2=495.217$  ( $p<.001$ ),  $df=231$ ,  $CMIN/DF$  2.144,  $GFI$  .902,  $AGFI$  .878,  $NFI$  .911,  $CFI$  .954,  $RMSEA$  .067. The SEM results showed that the young entrepreneurs' growth factors such as policy support( $\beta=.457$ ,  $p<.001$ ), skills & knowledge( $\beta=.244$ ,  $p<.01$ ), role model( $\beta=.242$ ,  $p<.05$ ) in order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capability( $\beta=.787$ ,  $p<.001$ ) had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verifying organic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growth factors,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s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re should be more systematic supports to encourage young entrepreneurs. Limitations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Young entrepreneurs, Growth factors, Entrepreneurial capability, Entrepreneurial intentions, Culinary and Foodservice major

#### I. 서론

창업(Entrepreneurial)은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자원의 활용과 품질혁신 등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도 촉매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ne *et al.* 2003).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나라마다 창업을 통한 경제적 부흥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주도에 근간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지원하며 창업활성화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실업의 증가문제는 국가경제발전에 큰 저해

¶ : Corresponding Author : Young-Ah Rha, 010-7758-7088, yana@eulji.ac.kr, Eulji University

교신저자 : 경기 성남시 수지구 양지동 성남대로 553, 울지대학교, Seongnam, Korea 461-713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대학 또한 국가혁신체제와 고용창출에 따른 정책일환의 요구로 청년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고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Park C · Kang YR 2010).

청년사업가란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기회를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30세 전후 연령의 잠재적 사업가로 정의될 수 있으며(Krueger NF · Brazeal DV 1994), 기존 기성세대들의 창업은 새로운 시장의 기회포착, 자원의 관리, 수익의 재투자, 시장 확대, 창업이전의 근무경험을 통한 경력개발, 창업자의 경험철학과 비전 등이 창업의 동기와 특성으로 인지되지만(Sung CH · Kim JS 2011; Sung OK 2012), 청년창업의 경우는 창업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자정신의 함양과 정부주도의 근간한 정책적 지원, 대학산·학 협력 등을 통한 기술지원과 인력양상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Kim DE · Chang SS 2013; Urbano D · Guerrero M 2013). 이에 따라 정부 또는 대학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이 성공적인 궤도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청년실업률을 대체하는 단기적인 목적달성과 산학협력의 정보공시 지표에 치우쳐 청년사업가의 소질을 발견하고 창업활동에 대한 이해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증대시키는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Cha *et al.* 2012; 창업진흥원 2011).

이러한 인식에 따라 최근 창업연구 또한 청년 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사업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년사업가의 개인적 특성 연구(Lee H · Beak MJ 2012), 각 나라별 대학생의 창업성향 비교연구(Klofsten M · Jones ED 2000; Park C · Kang YR 2010), 잠재적 예비창업가의 창업행동 연구(Chung DY · Han KS 2012; Kim DE, Chang SS 2013), 대학교육과 관련된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간의 연구(Bernasconi A 2005; Urbano D · Guerrero M 201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자의 특성 또는 지각된 지원체계 등을 통해 청년사업가의 창업성향과 창업의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사업가의 육성과 창업 과정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창업주체인 대학생들이 생계형창업이 아닌 기회창출형 창업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제언하며, 국가와 대학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창업기회를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업가 자질과 창업역량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2 중소기업청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종과 관련하여 국내 대학생 63.3%가 창업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창업 유형 및 업종조사에 관한 질문에 35.7%가 외식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식창업이 대학생들에게 있어 선호도가 높은 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리·외식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외식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성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성장요인을 통한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이 인지하는 전공적합성에 따라 외식 창업역량과 창업의도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는 세분화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청년사업가를 위한 성장요인에 따른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전공적합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의 외식창업의도에 성공적인 인과관계 모형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창업성장요인과 창업역량

청년사업가의 창업역량을 높여주는 선행요인으로 역할모델(Role model)을 설명할 수 있다. 역

할모델은 사회적 학습의 한 형태로 특히, 창업가들은 대부분 역할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과 창업행동과정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Barnir *et al.* 2011; Kim DE · Chang SS, 2013). 특히, 잠재적 창업가인 청년창업의 경우 타인의 속성을 모방하여 긍정적인 유사성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모델은 청년사업가의 창업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Gibson, 2004). Moi *et al.* (2011)과 Bosma *et al.* (2011)은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등의 창업경험은 역할모델을 통한 창업동기가 유발되고 청년사업가의 창업역량에도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국내연구로 관광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설명한 Kim MS · Kim YG (2012)연구도 가족역할모델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창업에 대한 기술지식(Skills & knowledge)은 개인의 태도와 이에 따른 창업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창업역량과 영향변수로써의 기술지식은 개인의 창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Kim MS · Kim YG 2012), Chung *et al.* (2002)은 잠재적 창업자가 창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관련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은 창업패턴과 창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외식업과 관련되어 Park YS · Kwon YJ (2009)는 창업교육의 유무에 따라 창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의 중요도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Kim YJ · Kim YG (2013)은 개인의 친숙한 기술과 지식수준이 창업역량과 활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연구한 Collin *et al.* (2006)은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태도간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셋째, 창업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소자본 창업에 경우 개인의 창업 경험(Experience) 또는 관

련업종에 대한 근무경험 등이 창업태도와 의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tuart R · Abetti PA (1987)는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력 및 경험을 중요한 변수로 도출하였으며, 소상공인 창업동향을 국가별로 분석한 Smith *et al.* (2009)과 Rob *et al.* (2011)은 소자본 창업에서 위험감수와 확신을 증가시켜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경험 등을 검증하였다. 또한 Ha KS (2012)는 과거의 사업경험이 사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Sung OK (2012)는 동종업계의 종사와 배경경험 등이 기업가 정신 함량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창업자의 정책지원(Policy support)인 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은 창업활동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Cuervo A (2005)연구에서 창업자의 재무적 환경이나 법·제도적 시스템 지원 등이 창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도출되었고, Rothaermel *et al.* (2007)은 대학생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산학협력, 창업지원, 대외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대학의 기업정신 고취 역량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창업활동에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a *et al.* (2012)은 창업자의 자금 유치가 수월해지고, 실패 후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 등의 제도적 지원은 창업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강조하였다. 대학생 창업을 연구한 Kim MS · Kim YG (2012)와 소상공인 창업을 연구한 Sung OK (2012)은 정부기관과 대학 내의 산학협력 등에서 지원하는 금융, 제도 지원 등이 청년사업가의 의식구조의 개선과 창업활동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들은 현재의 창업이 개인의 성향과 특성만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외부적 장벽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적 상황을 이

해시킴으로써 소상공인과 특히 대학생 등의 창업 역량을 높이는 유용한 변수로 판단되었다.

## 2.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창업 및 벤처분야에서 창업역량(Entrepreneurial capability)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지식, 기술 및 능력과 같은 특징으로 개념화하며,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Baum *et al.* 2001).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을 연구한 Veciana *et al.* (2005)은 청년층이나 대학생과 같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사업의 경우 어떠한 요인이 창업역량을 높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에 대한 행위 및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잠재적 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과 새로운 창업을 하려는 의지로 설명할 수 있다. 창업의도와 관련하여 Ajzen I · Fishbein M (1980)은 계획된 행동 모형을 인용하여 행동의지는 행동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수라고 설명하였고, Kantz J · Garther WB (1988)는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의도에 관한 이해는 창업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창업역량과 창업의도간의 영향관계를 설명한 연구로 Man TW · Lau T (2000)는 소규모 기업 연구에서 창업자의 역량은 개인과 직장, 교육 등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역량은 창업의 의지와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Baum *et al.* (2001)연구에서 창업역량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며 창업행동과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iklund J · Shepherd D (2003)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개인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ichelmores · Rowley J (2010)는 창업자의 역량은 사업의

성장과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며, 창업의지와 기업의 수익성에도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전공 적합성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적성, 흥미, 가치관, 전공과 직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등이 종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Lim E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연구한 Matlay H (2008)는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창업관련 수업과 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스킬을 높이며 창업의도와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현재 대학들도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Politis D 2005; Park YS · Kwon YJ 2009). 특히 대학생의 경우 그들이 속해있는 교육환경이나 학문적 특성에 따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을 연구한 Park C · Kang YR (2010)은 전공에 따라 창업 성향이 다르게 인지되었으며, 전공이 창업 분야와 일치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식경영 전공 대학생들의 근로가치관은 연구한 Yoon JY (2010)은 자기만족, 성취감 부분에서 다른 직종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창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타성 및 자기개발의 부분에도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식창업의 경우 소자본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개인의 친숙한 지식수준과 기술 등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양한 메뉴개발과 컨셉개발이 조리 · 외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높여주는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 전공자들의 창업관련 역량과 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alker JR 2007).

### Ⅲ. 연구설계

####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리·외식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사업가의 성장요인과 창업역량 및 창업의도와의 유기적인 인과관계와 전공적합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다음 <Fig 1>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성장요인과 창업역량과의 관계

청년사업가를 위한 성장요인과 창업역량과의 관계에서 Gibson (2004)과 Moi *et al.* (2011)등은 가족역할모델을 청년사업가의 성장요인으로 도출하고 정(+)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Chung *et al.* (2002)과 Kim YJ·Kim YG (2013)등은 개인의 창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수준이 창업역량과 활동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mith *et al.* (2009)과 Ha KS (2012)연구에서 소자본 창업의 경우 개인의 창업경험 또는 관련업종에 대한 근무경험 등이 창업역량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Cuervo

A (2005)와 Rothaermel *et al.* (2007) 등은 대학생 창업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시스템지원 등이 창업역량과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성장요인은 창업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역할모델은 창업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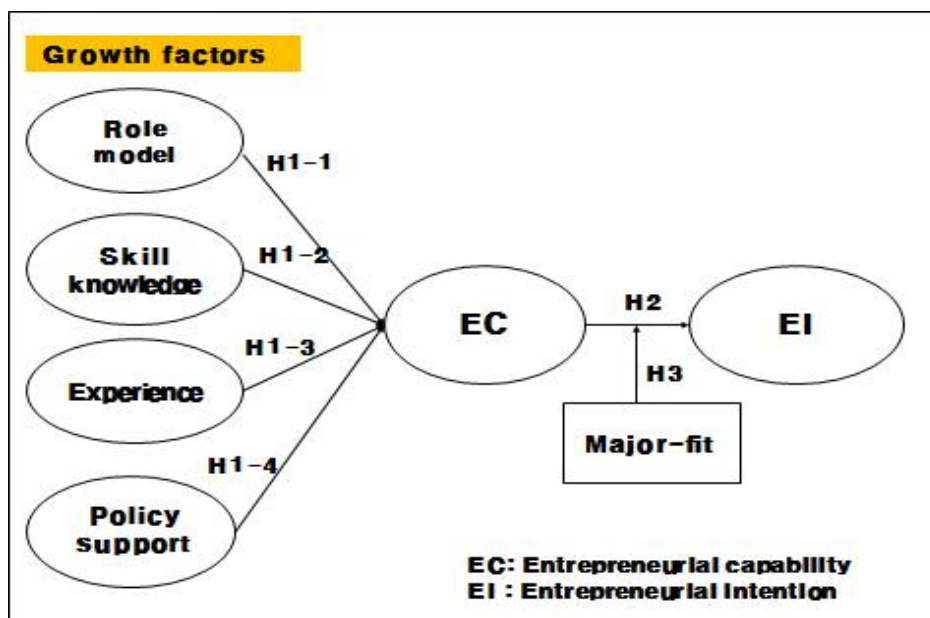
H1-2 : 기술지식은 창업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경험은 창업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 정책지원은 창업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창업역량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Baum *et al.* (2001)과 Wiklund J·Shepherd D (2003)등은 창업역량이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써 창업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Fig. 1> Research model

조사되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Veciana *et al.* (2005)과 창업자의 역량과 성장에 관해 연구한 Michelmores S · Rowley J (2010)에서도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 관계는 정(+)의 영향관계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창업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전공적합성 조절효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연구한 Matlay H (2008)와 Park C · Kang YR (2010) 등은 전공에 따라 창업 성향이 다르게 인지되었으며, 전공이 창업 분야와 일치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식경영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Yoon JY (2010)과 Walker JR (2007) 등의 연구에서도 전공과 유사한 창업아이템은 창업자의 역량과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전공적합성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지각된 전공적합성은 창업역량과 창업의도간의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 1) 성장요인

역할모델(Role model)은 “창업과 관련하여 자신과 유사하다고 느끼거나 닮고 싶어 하는 특정인의 속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바람직한 인물상”으로 정의 하였으며(Gibson, 2004), Bosma *et al.* (2011), Kim MS · Kim YG (2012)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나의가족(또는 형제)의 창업 경험은 나의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가까운 지인의 창업을 통해 창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멘토링 등의 지원은 나의 창업에 효과적인 것이다 등 총 3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7=“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이하 동일)로 측정하였다.

창업과 관련된 기술지식(Skills & knowledge)은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보유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Collin *et al.* 2006), Park YS · Kwon YJ (2009), Kim YJ · Kim YG (2013)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나는 외식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내가 보유한 지식과 기술은 창업활동에 효과적이다 등 총 3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경험(Experience)은 “관련업종에 관한 직무경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Rob *et al.* 2011), Stuart R · Abetti PA (1987), Smith *et al.* (2009), Ha KS (2012)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외식관련 직무경험(아르바이트)등은 창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에서 제공한 산학협력 또는 현장실습 등은 나의 창업에 도움을 준다, 나의 직무 경험은 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등 총 3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Policy support)은 “창업을 위한 재무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Cuervo 2005), Rothaermel *et al.* (2007), Cha *et al.* (2012), Sung OK (2012)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창업을 위한 정부 금융지원은 나의 창업을 촉구할 것이다,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나의 창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창업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은 나의 창업에 도움을 준다, 정부·대학의 창업보육지원제도와 경영지원은 나의 창업에 효과적이다 등 총 4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창업역량(Entrepreneurial capability)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Baum *et al.* 2001), Man TW · Lau T (2000), Wiklund J · Shepherd D (2003), Michelmore S · Rowley J (2010)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나는 창업을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특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 할 자신이 있다, 나는 계획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나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등 총 4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잠재적 청년사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과 의지에 대한 측정”로 정의하였으며(Veciana *et al.* 2005), Kantz J · Garther WB (1988), Ha KS (2012), Kim YJ · Kim YG (2013)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나는 향후 5년 이내 (또는 졸업 후) 외식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 나는 다른 직무보다 외식창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이다, 나에게 외식창업은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된다 등 총 3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전공적합성

전공 적합성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애착과 몰입 정도”로 정의하였으며(Lim E 2006; Matlay H 2008), Politis D (2005), Walker JR (2007), Park C · Kang YR (2010)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나의 전공은 나의 적성에 부합한다, 나의 전공과목은 흥미롭다, 나의 전공과목은 외식창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등 총 3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5개 대학 조리 · 외식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2013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설문 50부를 배포하여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보완하여 2012년 4월 25 일부터 2013년 5월 25일까지 30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비확률표

본추출 방법인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설문지 배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신학기인 점을 감안하여 1학년 학생들은 제외하고 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450부 설문지 중 총 385부(86%)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329부(73%)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집중타당성을 고찰하기 위해 합성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을 계산하였다. 도출된 요인 간 연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분석 실시와 연구가설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진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155명(47.1%), 여학생 174명(52.9%)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2학년 191명(58.1%), 3학년 87명(26.4%), 4학년 51명(15.5%)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연령은 21.5세로 조사되었으며, 전공은 조리 151명(45.9%), 외식 178명(54.1%)로 비교적 동일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 2. 측정 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측정하기에 앞서 3가지 측면에서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 신뢰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역할모델, 기술지식, 경험, 정책지원 등의 4개 요인과 전공적합성, 창업역량 및 창업의도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누적설명력은 75.913%로 조사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tems	Community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Role model	R1	.683	.096	.745	.101	.026	.146	.280	.093	.905
	R2	.657	.252	.746	.101	.120	.026	.106	.027	
	R3	.712	.167	.791	.088	.089	.142	.039	.141	
	R4	.743	.110	.802	.090	.153	.163	.075	.153	
Skills & knowledge	S1	.684	.068	.171	.057	.081	.869	.104	.141	.910
	S2	.789	.127	.129	.113	.169	.807	.186	.120	
	S3	.839	.045	.128	.061	.158	.904	.135	.030	
Experience	E1	.829	.131	.145	.029	.227	.218	.726	.136	.905
	E2	.774	.136	.135	.100	.056	.101	.840	.152	
	E3	.884	.096	.153	.087	.143	.131	.858	.159	
Policy support	P1	.656	.098	.240	.730	.169	.108	.123	.002	.906
	P2	.671	.171	.015	.763	.151	.028	.185	.033	
	P3	.620	.209	.165	.710	.172	.021	.070	.102	
	P4	.682	.193	.012	.778	.088	.092	.007	.154	
Major-Fit	M1	.823	.122	.156	.189	.815	.128	.188	.182	.903
	M2	.855	.144	.097	.227	.841	.178	.136	.125	
	M3	.879	.137	.139	.201	.861	.151	.114	.154	
Entrepreneurial capability	C1	.765	.805	.168	.191	.034	.053	.125	.181	.896
	C2	.831	.807	.194	.267	.135	.010	.145	.176	
	C3	.745	.787	.159	.160	.190	.091	.095	.149	
	C4	.781	.819	.161	.155	.091	.140	.072	.164	
Entrepreneurial intention	I1	.797	.185	.124	.105	.068	.096	.136	.839	.892
	I2	.756	.200	.181	.021	.176	.150	.203	.767	
	I3	.764	.270	.109	.192	.264	.076	.159	.736	
Eigen Value			8.525	2.347	1.906	1.657	1.428	1.307	1.050	
Cumulative of %			35.519	9.779	7.940	6.904	5.950	5.447	4.374	
Total Cumulative %			75.913							

되었다.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측정 항목의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도출된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892~.910로 조사되어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는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Nunnally JC 197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측정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합성신뢰도는 .701~.881, 표준분산추출값은 .50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701~.926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집중타당성도 검증되었다(Anderson JC, Gerbing DW 1988; Fornell C, Larcker DF 1981). 또한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대상이 되는 잠재요인 각각의 AVE와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여 AVE가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큰지 확인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잠재요인 간 상관관계 제곱의 크기는 .069~.264로 AVE의 범위인 .506~.784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요인은 모두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ornell C, Larcker DF 198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총 7개의 요인이 개별적이며 단일차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대한 적합도  $\chi^2=495.217$  ( $p<.001$ ),  $df=231$ , CMIN/DF 2.144, GFI .902, AGFI .878, NFI .911, CFI .954, RMR .057 등으로 나타났으며, Hair *et al.* (2006) 제시한 적합한 판단기준에 대체로 충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CCR	AVE
Role model	R1	1.000	.722	fixed	.718	.580
	R2	.880	.701	11.553***		
	R3	1.029	.800	13.221***		
	R4	1.120	.832	13.500***		
Skills & Knowledge	S1	1.000	.750	fixed	.767	.667
	S2	1.058	.789	14.049***		
	S3	1.251	.903	15.127***		
Experience	E1	1.000	.851	fixed	.800	.743
	E2	.917	.805	17.495***		
	E3	1.118	.926	20.310***		
Policy support	P1	1.000	.711	fixed	.701	.506
	P2	1.204	.717	11.159***		
	P3	1.196	.703	10.989***		
	P4	.976	.715	11.143***		
Major-Fit	M1	1.000	.858	fixed	.881	.784
	M2	.995	.878	20.759***		
	M3	1.088	.919	22.107***		
Entrepreneurial capability	C1	1.000	.836	fixed	.821	.698
	C2	1.151	.905	20.297***		
	C3	.988	.792	16.781***		
	C4	.978	.803	17.119***		
Entrepreneurial intention	I1	1.000	.772	fixed	.730	.626
	I2	.992	.795	14.027***		
	I3	.1031	.828	14.480***		

$\chi^2=495.217(p<.001)$ ,  $df=231$ ,  $CMIN/df=2.144$ ,  $GFI=.902$ ,  $AGFI=.878$ ,  $NFI=.911$ ,  $CFI=.954$ ,  $RMSEA=.057$

Note: \*\*\* $p<.001$ , CCR;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1차적인 방법으로 각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역할모델, 기술지식, 경험, 정책지원, 전공적합성, 창업역량, 창업

의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본 연구의 방향성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관분석을 통해 구성개념간의 상관성은 알 수 있으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이론 모형의 적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1	2	3	4	5	6	7
1	Role model	1	-	-	-	-	-	-
2	Skills & knowledge	.366**	1	-	-	-	-	-
3	Experience	.394**	.390**	1	-	-	-	-
4	Policy support	.319**	.237**	.258**	1	-	-	-
5	Major-Fit	.362**	.389**	.407**	.461**	1	-	-
6	Entrepreneurial capability	.447**	.262**	.356**	.483**	.391**	1	-
7	Entrepreneurial intention	.391**	.329**	.445**	.328**	.458**	.514**	1

Note: Pearson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 $p<.01$  level (2-tailed)

<Table 4> Results of test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Hypothesis		$\beta$	t-value	Result
H1-1	Role model → Entrepreneurial capability	.242	2.520*	accepted
H1-2	Skill & knowledge → Entrepreneurial capability	.244	2.948**	accepted
H1-3	Experience → Entrepreneurial capability	-.088	-1.383	rejected
H1-4	Policy support → Entrepreneurial capability	.457	3.665***	accepted
H2	Entrepreneurial capability → Entrepreneurial intention	.787	6.271***	accepted

$\chi^2=316.647(p<0.001)$   $df=177$ , CMIN/df=1.789, GFI=.920, AGFI=.892, NFI=.913, CFI=.956, RMR=.051

Note: \* $p<.05$ , \*\* $p<.01$  \*\*\* $p<.001$

합도 지수는  $\chi^2=316.647$  ( $p<.001$ )  $df=177$ , CMIN/df=1.789, GFI=.920, AGFI=.892, NFI=.913, CFI=.956, RMR=.051 등으로 나타났으며<Table 4>, 전공적합성에 따른 조절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 성장요인이 창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청년사업가의 성장요인과 창업역량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책지원( $\beta=.457$  t-value 3.665,  $p<.001$ ), 기술지식( $\beta=.244$ , t-value 2.948,  $p<.01$ ), 역할모델( $\beta=.242$ , t-value 2.520  $p<.05$ ) 등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어, 가설 H1-1, H1-2, H1-4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H1-3 경험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해 H1-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사업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기관의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Rothermel *et al.* (2007), Cha *et al.* (2012), Sung OK (2012) 등과 유사한 결과의 도출이며, 또한 기술지식과 역할모델을 창업역량의 선행변수로 도출한 Collin *et al.* (2006), Bosma *et al.* (2011), Kim MS · Kim YG (2012) 등과도 같은 견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창업이전의 유사한 경험 등을 창업역량의 영향변수로 검증한 Stuart R · Abetti PA (1987), Smith *et*

*al.* (2009)등의 연구와는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위험감수성향이 낮은 사람의 경우 실제 현장 경험에서 불확실한 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한 경우 창업에 대한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Ha KS 2012).

2)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 인과관계( $\beta=.787$ , t-value 6.271,  $p<.001$ )를 검증한 결과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Man TW · Lau T (2000), Wiklund J · Shepherd D (2003), Michelmores S · Rowley J (2010) 연구에서 창업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년사업가의 성장요인은 창업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또한 창업의도와도 유의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총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전공적합성 조절효과

본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Table 5> Modeling effect of Major-Fit

	high level (n=177)		low level (n=155)		Unconstrained model chi-square (df=354)	constrained model chi-square (df=355)	$\Delta\chi^2_{(df=1)}$
	$\beta$	t-value	$\beta$	t-value			
H2	.816	5.606***	.591	4.727***	641.782	646.582	4.790

Note: GFI=.859, NFI=.855, CFI=.930, IFI=.916, RMR=.050 \*\*\* $p<.001$

와의 전공적합성을 조절효과로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전공적합도 요인을 평균(리커트 7점 척도의 4.7)을 기준으로 전공적합성을 높게 인지한 집단( $n=177$ )과 낮게 인지한 집단( $n=155$ )으로 구분하였으며, 잠재요인간의 관계를 Free로 한 자유모형(Unconstrained model)과 다른 하나는 잠재요인 간 관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을 설정하여 두 모형의  $\chi^2$ 값의 차이로 집단 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최종모형 적합도는  $\chi^2 = 641.782$  ( $p < .001$ )  $df=354$ , CMIN/df=1.813, GFI=.859, NFI=.855, CFI=.930, IFI=.916, RMR=.050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설 H3의 조절효과를 분석해보면, 외식창업에 있어 조리·외식전공 적합도를 높게 인지한 집단( $\beta = .816$ , t-value 5.606,  $p < .001$ )이 낮은 집단( $\beta = .591$ , t-value 4.727,  $p < .001$ )보다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ree 모형과 제약모형의  $\chi^2$ 값을 비교한 결과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의 경우, 지각된 전공적합성에 따라 외식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elta\chi^2(1)=4.790 > \Delta\chi^2_{.05}(1)=3.84$ ).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전공여부가 창업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검증한 Politis D (2005), Walker JR (2007) 등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사업가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리·외식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청년사업가의 성장요인과 창업역량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지원( $\beta = .457$  t-value 3.665,  $p < .001$ ), 기술지식( $\beta = .244$ , t-value 2.948,  $p < .01$ ), 역할모델( $\beta = .242$ , t-value 2.520  $p < .05$ ) 순으로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Collin *et al.* (2006),

Rothaermel *et al.* (2007), Bosma *et al.* (2011), Kim MS·Kim YG (2012) 등의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창업의 경우 창업역량을 높여주는 선행변수로는 정책지원, 기술지식, 역할모델 등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특히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사업가의 경우 정부나 관련기관의 정책 지원을 상대적으로 창업역량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년사업의 경우 기존의 기성세대나 실버세대와는 다르게 자본조달계획이나 기업체 근무경력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창업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청년창업의 역량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적으로 Cha *et al.* (2012)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자금부족을 남녀 학생 모두 1위로 선정한 결과를 보더라도 초기 창업의 경우 자금유치에 관한 제도 안내는 청년사업의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술과 지식의 보유는 청년사업가의 창업자신감과 창업아이디어 도출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하는 창업 분야의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창업과정에 있어 역할모델은 잠재적 사업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모님의 창업 등에서 보고 배운 가업에 대한 생각이나 또는 학교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성공한 창업가의 특강과 사례연구, 멘토링 시스템 등이 청년사업가의 창업역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역량( $\beta = .787$ , t-value 6.271,  $p < .001$ )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관계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Wiklund J·Shepherd D (2003), Michelmore S·Rowley J (2010) 등의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창업의 경우 창업역량은 창업의도와 인과관계

가 있으며, 창업역량이 높아질수록 창업의도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최근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실업의 증가 문제는 국가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대학 또한 국가에서 고용창출에 따른 정책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창업을 부추기는 분위기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창업역량을 높게 인지하면 창업의도 또한 높아짐을 증명한 결과로 청년사업가 스스로가 창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분야의 역량을 높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청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년사업가의 경우 전공의 적합성은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특히 외식창업의 경우는 소자본 창업에 유리하며, 분야에 대한 친숙도나 지식이 명료할 때 창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oon JY (2010) 연구에서 외식경영 전공 학생들 중 창업의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이 자기만족, 성취감 부분에서 다른 직종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조리·외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공 적성이 잘 맞고 조리외식 교과목의 흥미를 높게 느끼는 집단일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k C·Kang YR (2010) 연구에서도 대학생 시절의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은 청년사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리·외식 전공 교과목과 산학협력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생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청년사업가처럼 잠재적인 창업가의 경우 창업의 위험요소보다 기회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의 함량이 중요하며 또한 청년사업가의 창업의도라는 것은 우연한 기회가 아닌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청년사업가를 성장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창업역량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것은 현재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대학정책에 기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정부주도에 근간하여 창업보육센터나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이 창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에는 자격과 지원 등에서 문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학생들의 접근을 좀 더 수월하게 해 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금이나 제도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전공교과목을 통한 기술지식의 함량 그리고 성공적인 역할모델의 존재 등을 통한 멘토 제도 등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청년사업가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표본 추출에 있어 서울·경기지역에 국한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대표성이 의심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에 관한 선행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창업의도가 실제적인 창업 이후에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사업가의 창업역량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을 도출하였지만 여러 분야의 창업관련 척도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외식창업에 일반화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외식창업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척도의 개발과 세분화 작업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사업가를 위한 성장요인이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 전공적합성에

따른 조절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2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분석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2개의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최종모형 적합도는  $\chi^2=495.217$  ( $p<.001$ ),  $df=231$ , CMIN/DF 2.144, GFI .902, AGFI .878, NFI .911, CFI .954, RMSEA .067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청년사업가의 성장요인과 창업역량과의 영향 관계에서 성장요인 중 정책지원( $\beta=.457$ ,  $p<.001$ ), 기술지식( $\beta=.244$ ,  $p<.01$ ), 역할모델( $\beta=.242$ ,  $p<.05$ ) 등이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창업역량( $\beta=.787$ ,  $p<.001$ )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관계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장요인과 창업역량, 그리고 창업의도간의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역량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전공적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공적합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문헌

-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 (2012) (보고서2012-12), 1-18.
- MB정부 창업지원시책 분석 및 보완과제 연구, 창업진흥원(2011) (보고서 2011-7), 1-14.
- Anderson JC, Gerbing D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jzen I,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arnir A, Watson WE, Hutchins HM (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 Baum JR, Loche EA, Smith KG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ernasconi, A (2005). University entrepreneurship in a developing country: The case of the P.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 1985-2000. *Higher Education*, 50(2): 247-274.
- Bosma N, Hessels J, Schutjens V, Praag MV (2011). Entrepreneurship and role model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2): 410-424.
- Cha MS, Ahn SH, Lee JW, Kim YH (2012). A design of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and action plan for young entrepreneur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5(1): 93-125.
- Chung DY, Han KS (2012). Effects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n entrepreneurial outcome satisfaction mediated by growth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4(1): 97-119.
- Chung JY, Cha MS, Bae ZT (2002).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cubating organizations and entrepreneurs on new venture creation processe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5(2): 61-92.
- Collins LA, Smith AJ, Hannon PD (2006). Applying a synergistic approach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Management learning*, 37(3): 335-354.
- Cuervo A (2005). Individual and entrepreneurial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3): 293-311.
- Fornell, C, Larcker, D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ibson DE (2004). Role model in career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1): 134-156.
- Ha KS (2012).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m business attitude and fear on business failure.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19(5): 59-74.
- Hair, JF Jr, Anderson RE, Tatham RL, Black WC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 6th ed. Macmillam Publishing Company, NY. USA.
- Kantz J, Gartner WB (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im DE, Chang SS (2013).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nascent behavior and inten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Focus on meister school student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1): 25-46.
- Kim MS, Kim YG (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Kim YJ, Kim YG (2013). Effects of individual knowledge and skill, entrepreneurial attitud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foodservice industry; The mediating effects of over confidenc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6(2): 97-118.
- Klofsten M, Jones ED (2000). Comparing academic entrepreneurship in Europe: The case of Sweden and Ireland. *Small Business Economic*, 14(4): 299-310.
- Krueger NF, Brazeal DV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ia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Lim E (2006). Developing a instrument for evaluating fitness of college major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9(3): 1-21.
- Lee H, Beak MJ (2012).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norm.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5(2): 65-85.
- Man TW, Lau T (200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f SEM owner/manager in the Hong Kong service sector: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8(3): 235-254.
- Matlay H (2008).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382-396.
- Mitchelmore S, Rowley J (201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ment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4(2): 92-111.
- Moi T, Adeline YL, Dyana ML (2011). Young adult response to entrepreneurial intent. *Journal of Arts, Science & Commerce*. 2(3): 37-51.
- Nunnally JC. (1978). *Psychometric theory*. Mc Graw-Hill. NY. USA.
- Park C · Kang YR (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ark YS, Kwon YJ (200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rainees and lecturers on the food servi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2(2): 7-28.
- Rob JG, Petru LC, Patrick AM, Jac LA, Petra G (2011). Information processing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in small and medium-sized effectiveness enterprise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in attaining decision. *Inter-*

- 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1(2): 192 - 216.
- Politis D (2005). The process of entrepreneurial learning: A conceptual framework.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29(4): 399-424.
- Rothaermel FS, Agung SD, Jiang L (2007). University entrepreneurship: A taxonomy of the literatur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6(4): 691-791.
- Shane S, Locke EA, Collins CJ (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 Smith JB, Mitchell JR, Mitchell RK (2009) Entrepreneurial scripts and the new transaction commitment mindset: Extending the expert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approach to entrepreneurial cognition resear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815 - 844.
- Stuart R, Abetti PA (1987). Start-up ventures: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
- Sung CH, Kim JS (2011).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3(3):109-133.
- Sung OK (2012). A study of enterpriser's consciousness structure and small business foundation trend through foundation trend analysis of main country.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15(1): 101-113.
- Urbano D, Guerrero M (2013).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 Socioeconomic impacts of academic entrepreneurship in a european reg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7(1): 40-55.
- Veciana JM, Alponente M, Urband D (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Walker JR (2007). The restaurant: from concept to operation (5th ed.). p 5. John Wiley & Sons, Inc. Hoboken, NJ.
- Wiklund J, Shepherd D (2003). Knowledge-based resourc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3): 1307-1314.
- Yoon JY (2010). Work values of restaurant management students at university level.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19(6): 309-322.

---

2013년 07월 17일 접수

2013년 08월 20일 1차 논문수정

2013년 08월 27일 2차 논문수정

2013년 09월 05일 3차 논문수정

2013년 09월 15일 논문게재확정